

2022년 전국체전 목포서 열린다

대한체육회 이사회서 확정...전남도, 14년만에 개최 784억 투입 종합경기장 신축 추진, 경제 활성화 기대

엘리트 체육인의 대제전인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2008년 여수 개최 이후 14년 만에 전남에서 열린다. 전남도는 25일 "이날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로 목포시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이사회에서 전국체전 개최 유력후보지로서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유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2008년 여수

에서 개최한 이후 14년 만에 두 번째로 전국체전을 치르게 됐다. 이를 계기로 전남의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도 천년을 맞은 전남도 발전의 획기적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목포종합운동장 신설 등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체육인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으로 전남 체육기반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8월 대한체육회에 전국체전 유치를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후 전국체전 실사단이 지난 3월 주경기

장이 건립될 목포시를 방문해 유치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경기장 등을 점검하며 만족감을 보였다.

목포시는 국비 및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784억원을 들여 목포축구센터 인근에 종합경기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전국체전 개최 전까지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체전추진 데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2019년 상반기에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전국체전 유치로 전남에서는 장애인, 소년생활체육 등 4개 대회가 2년에 걸쳐 열린다. 전국체전 개최로 대회 기간 동안 3만여 명의 선수와 응원단 등이 전남에 머물게 돼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이

활기를 띠면서 약 3천억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2022년 전국체전은 전라도의 멋과 맛을 더해 전 국민이 감동하는 역대 최고의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목포시와 도내 전 시군 및 도·시군 체육회를 중심으로 200만 도민이 함께 뭉쳐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되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전국체전에 필요한 46개 종목 중 목포시에서 대회를 치르거나 어려운 종목은 새 경기장을 신설하기보다는 주변 시군 경기장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임재만 기자 icm@kjdaily.com

전남 어가 소득 5년 연속 증가

지난해 평균 4천900만원 40대 이하 경영주 1억2천만원

전남지역 어가 소득이 5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의 '2017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어가 평균소득이 4천902만 원 늘었다. 연도별 어가 평균소득은 2013년 3천859만 원, 2014년 4천101만 원, 2015년 4천389만 원이다.

어가 평균 자산도 4억3천723만원으로 전년(4억896만 원)보다 6.9% 증가했다.

어업 형태별로는 양식어가 평균소득이 7천750만원으로 어로어가 평균소득 3천812만 원보다 2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어로어가는 1.8% 증가한 반면, 양식어가는 7.9% 증가했다.

특히 양식어가의 지난해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5천869만 원)보다 1.3배 높았다. 이는 지난해 해황 여건 양호로 어류와 해조류 양식 소득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영주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경영주의 어가소득이 1억 2천139만원, 자손은 7억 2천842만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과 자산이 가장 높았다.

/임재만 기자 icm@kjdaily.com

도심서 문화생활 즐기세요 시, 근린공원 프로그램 다채

광주시는 25일 "5월부터 11월까지 시민들이 도심 속 공원에서 여가와 문화생활 등을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월 민간단체에서 각 공원의 특성에 맞게 자체 기획한 '도시공원 이용프로그램'을 공모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8개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을 최종 선정했다.



뿌리산업전시회 개최 2018 국제뿌리산업전시회가 25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양정환 광주시장,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장,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우선 전국 최초 도심철도 폐선부지인 푸른길공원에서 푸른길 조성 유래와 각 구간별 테마를 주제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푸른길 안내지도와 제작(영문판)해 배포한다.

물빛공원, 본촌공원, 중앙공원(풍암제), 수완호수공원 등에서는 (사)광주생명의숲국민운동에서 '숲 체험도 하고! 천연 가습기도 만들고!'라는 주제로 숲속 놀이터 체험과 천연 가습기(석창포화분)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두암제2근린공원에서 '숲 속 친구 생태와 놀자, 자연에 흠뻑 젖는 생활도에 이야기'를 주제로 숲속 동식물 관찰 체험, 도자기 빚기 체험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또 일곡지구 한새봉 농업생태공원에서 모내기에서 추수까지 벼농사 체험을 할 수 있는 '한새봉 벼논학교'가 운영되며, 일곡공원에서는 '공원에 핀 사람꽃'을 주제로 생태안내자 교육, 숲 놀이터 조성, 사계절 놀이 활동을 전개한다.

8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일정과 참여 방법 등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재정 기자 jk@kjdaily.com

광주 북부순환도로 2공구 내달 2일 개통

일곡교차로-도동교차로 3.52km 구간 완료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부순환도로개설공사의 2공구(일곡교차로-도동교차로)가 오는 5월2일 개통된다.

북부순환도로개설공사 2공구는 일곡동 일곡교차로부터 장등동 도동교차로까지 총연장 3.52km, 폭 20m, 왕복 4차로 규모다.

광주시는 2012년 8월부터 6여 년간 총

사업비 79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북부 일곡지구와 각하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문흥지구간 북부순환도로망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지역간 이동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되고 물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루 2만5천대 이상의 차량이 북부순환도로로 분산돼 호남고

속도로 용봉 IC, 동광주 IC와 동문대로 등 시가지도로의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찬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은 "북부순환도로개설공사 2공구 개통으로 일곡, 문흥 등 북부지역 교통 불편이 해소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jk@kjdaily.com

도, 전문가 초빙 개인정보보호 특강

업무담당자 등 실무 중심 교육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보안 전문가 초빙 특강을 실시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도, 시·군 정보보안 업무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직원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전남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침해사고 등이 갈

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해 사이버 공격을 통한 개인정보를 탈취해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등 공격의 유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다양화 돼 이를 예방하고 보안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특강에는 각 분야 전문가인 홍덕효 대표(스마트이치)와 이동휘 교수(동신대 융합정보보안학과)가 초빙됐으며, 각종 보안사고의 유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임재만 기자 icm@kjdaily.com

2월 출생아·혼인 1981년 통계작성 후 최소

27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감소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크게 늘면서 인구 자연증가 폭이 기록적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25일 공개한 인구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2만7천500명으로 작년 2월보다 3천 명(9.8%) 줄었다.

월별 출생아 수 통계가 정리된 1981년 이후 2월 기준 출생아 수는 올해가 가장 적었다.

출생아 수를 같은 달끼리 비교하면 2016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23개월째 역대 최소 기록이 이어졌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7개월 연속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에는 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 감소, 결혼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출산을 많이 할 연령대의 인구가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한 1984-1985년에 태어난 세대라서 인구 구조상 출산 급감이 사실상 예고됐다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30-34세 여성 인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줄어들고 있으며 혼인이 6년 연속 감소했다"며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네"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 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062)222-1095, 1096

악기 디지털 미디 반주기

ASSA PRO 8000

연주기 자체에서 녹음이 되는 즉시 MP3 파일로 저장해서 자신이 부른 노래나 연주를 DVD음질로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

힐링 미디어

박태호 010-6678-6723

DdM 카페 힐링미디어 검색

park6723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12-6 TEL. 062-223-6723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
외벽·목재·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집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솔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유사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혼동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문의도 무료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